Morning Meeting Notes

2026-01-19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What's Inside

[주식전략] Strategy Weekly - 여전히 설레는 코스피, 5000의 레시피는 무엇일까요?
[퀀트] Weekly Quanticle - 4Q 실적시즌 Preview, 신뢰도 하락의 원인

주식시장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 TSMC 실적발표 이후 반도체에 우호적인 투자심리 유지되며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 견인. 원전주 또한 강세. 한편, 최근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조선/방산 업종과 자동차 및 로보틱스 관련주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 헤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선임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며 투자심리 악화. 업종별로는 부동산만 1% 이상 상승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 특징 종목으로 마이크론은 폭발적인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로 인해 주가가 7.76% 급등하며 시총 20위 진입

금리&환율

국고채 금리는 하락 마감. 전일 매파적 금통위로 급등했던 국고채 금리는 금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하락
미국채 금리는 상승 마감. 대표적인 비둘기파적 성향을 가진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낮아지자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트럼프 대통령은 해싯 위원장이 백악관에 남길 원한다고 발언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3.90원 오른 1,473.60원에 마감. 달러화 약세와 엔화 강세 흐름이 이어졌으나, 수입업체 결제 및 해외 투자 환전 수요가 원/달러 상승세를 이끔
달러인덱스는 99.37로 소폭 하락. 하락하던 달러는 해싯 위원장의 차기 연준 의장 선임 가능성이 낮아지자 약보합권까지 회복

주요뉴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이에 해당 8개국은 공동성명을 발표. 덴마크의 훈련은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한 것으로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기반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

New Publications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CES 2026 - 방문 후기 및 투자 활용법(2026-01-14)
[자산배분] 대체투자 비중확대와 자산배분 - 대체투자 벤치마크 한계와 TPA의 대안(2025-01-07)
[중국] 2026년 중국 경제/증시 전망 - 소비&투자 확대가 5%성장의 Key (2025-12-15)
[반도체] (OVERWEIGHT) 2026년 반도체 산업 전망(2025-12-08)
[지주] (OVERWEIGHT) 2026년 지주회사 전망 - 계속 여력이 남아있다(2025-11-26)
[건설] (OVERWEIGHT) 2026년 건설 전망 - 오늘보다 나은 내일(2025-11-21)
[음식료/화장품] (OVERWEIGHT) 2026년 음식료/화장품 전망 - 이제는 K-소비재가 Trend Setter! (2025-11-21)
[투자전략] 2026년 투자전략 연간전망 - Thrive to Survive(2025-11-19)
[전기전자/디스플레이] (Overweight) 2026년 전기전자/디스플레이 산업 전망: Super-Cycle 지속(2025-11-19)
[자동차/모빌리티] (Overweight) 2026년 자동차/모빌리티 전망 MAGA의 역설: Made in Asia - 한국 자동차 할인 축소 기대-(2025-11-18)

Rating, Target Price Changes

S-Oil	M.PERFORM	83,000 원 ▷	BUY	107,500 원	(2026-01-16)
한화	BUY	108,000 원 ▷	BUY	157,000 원	(2026-01-16)
에이피알	BUY	310,000 원 ▷	BUY	330,000 원	(2026-01-16)
삼성전자	BUY	143,000 원 ▷	BUY	172,000 원	(2026-01-14)
현대차	BUY	430,000 원 ▷	BUY	520,000 원	(2026-01-14)
풍산	BUY	142,000 원 ▷	BUY	165,000 원	(2026-01-13)
삼성전기	BUY	288,000 원 ▷	BUY	340,000 원	(2026-01-08)
삼성물산	BUY	270,000 원 ▷	BUY	320,000 원	(2026-01-07)
현대제철	BUY	47,000 원 ▷	BUY	43,000 원	(2026-01-07)
LG에너지솔루션	BUY	613,000 원 ▷	BUY	500,000 원	(2026-01-02)
SK하이닉스	BUY	740,000 원 ▷	BUY	790,000 원	(2026-01-02)
삼성전자	BUY	129,000 원 ▷	BUY	143,000 원	(2025-12-29)
덕산네오룩스	BUY	58,000 원 ▷	BUY	57,000 원	(2025-12-24)

외국인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두산에너빌리티	428,776
삼성전자	123,404
알테오젠	74,049
LG전자	63,648
대한항공	59,344

국내기관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SK하이닉스	421,085
삼성전자	374,411
대한항공	137,206
삼성전자우	109,825
두산에너빌리티	83,009

외국인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현대차	-171,978
SK하이닉스	-107,299
현대모비스	-58,183
한국항공우주	-57,447
POSCO홀딩스	-49,891

국내기관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NAVER	-146,480
POSCO홀딩스	-143,946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143,284
현대차	-99,339
한온시스템	-68,599

국내시장 동향	종가	D-1(%)	D-20(%)
KOSPI	4,840.74	+0.90	+20.40
대형주	5,104.41	+1.03	+23.43
중형주	3,914.96	+0.10	+3.03
소형주	2,530.18	+0.17	-1.20
KOSDAQ	954.59	+0.36	+4.30

투자자별 매매동향 KOSPI	개인 (억원)	외국인 (억원)	기관 (억원)
순매수	-9,385	4,066	3,388
누적순매수(D-20)	-104,937	49,503	38,312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금액	D-1	D-20
(평균,단위 :억 원)	401,651	339,683	247,861

업종별 지수	종가	D-1(%)	D-20(%)
건설	119.61	+3.36	+20.30
금융	826.67	+0.89	+8.23
운수장비	6,033.89	-1.57	+29.18
유통	540.09	+0.86	+8.49
음식료	4,479.19	-0.33	-2.87
의약품	19,207.40	-0.55	+8.61
전기전자	59,300.41	+2.01	+32.48
철강금속	7,440.88	+0.55	+14.07
화학	4,304.02	-1.15	+2.95
유틸리티	1,578.51	+1.43	+8.37
통신	501.22	+0.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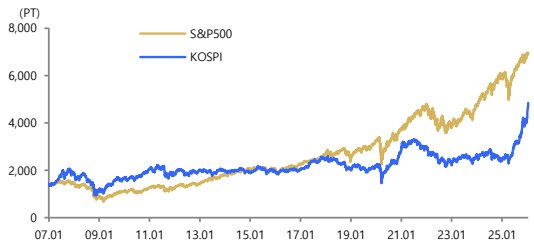
해외시장 동향	종가	D-1(%)	D-20(%)
S&P500	6,940.01	-0.06	+1.54
NASDAQ	23,515.39	-0.06	+0.89
일본	53,936.17	-0.32	+8.95
중국	4,101.91	-0.26	+5.44
독일	25,297.13	-0.22	+4.15

주요 금리 동향	종가	D-1(bp)	D-20(bp)
국고채 (3년)	3.08	-1.00	+7.00
국고채 (10년)	3.49	-0.50	+14.60
은행채AAA (3년)	3.32	-0.10	+5.20
미국국채 (2년)	3.59	+2.30	+10.35
미국국채 (10년)	4.23	+5.30	+7.65

환율 동향	종가	D-1(%)	D-20(%)
원/달러	1,473.60	+0.27	-0.18
원/백 엔	932.18	+0.62	-0.43
원/위안	211.48	+0.24	+0.86
달러/유로	1.16	-0.04	-0.94
위안/달러	6.97	+0.02	-1.03
엔/달러	158.08	-0.35	+0.25
Dollar Index	99.37	-0.02	+0.66

상품시장 동향	종가	D-1(%)	D-20(%)
WTI (usd/barrel)	59.44	+0.42	+4.91
금 (usd/oz)	4,595.40	-0.61	+4.74
BDI	1,567.00	+0.06	-24.34
천연가스(NYMEX)	3.10	-0.80	-22.11

KOSPI, S&P 추이



본 조사지표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Weekly

여전히 설레는 코스피, 5000의 레시피는 무엇일까요?

Strategist 김재승
jaeseung.kim@hmsec.com

- 코스피 11 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000선 근접. 연속 상승이 미래 하락 의미하지 않음
- 이번 강세장은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한 펀더멘털 장세라는 점에서 코스피 여전히 저렴
- 반도체 이외 업종으로 온기가 퍼져가고 있다는 점도 강세장에 우호적
- 외국인 순매수와 반도체 실적 호조에 대형 수출주 유리한 장세 이어질 전망

펀더멘털 중심 강세장 진행에 여전히 저렴한 코스피

코스피가 11 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000선에 불과 159pt 만 남겨뒀다. 코스피는 2000년 이후 2019년 4월, 9월 (13 거래일) 및 2006년 4월 (12 거래일)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의 11 거래일 상승에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연속 상승장이 미래 약세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2000년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한 날들의 미래 수익률을 분석하면 연속 상승과 추후 약세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그림1)**. 향후 수익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펀더멘털이다. **연속 상승 이후 약세를 보였던 경우는 대부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 수정되었다.**

이번 강세장은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한 펀더멘털 장세라는 점에서 코스피는 여전히 저렴하다(그림2).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0.4배로 과거 20년 평균 10배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그림3)**.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PEG는 코스피가 글로벌 주요 증시 중 가장 저렴하다**(그림4)**. 코스피의 12개월 후행 PBR은 1.65배 수준으로 과거 20년 평균 1.18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그림5)**, 높아진 이익 성장에 따른 ROE를 감안한다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할 경우 코스피의 ROE 대비 PBR은 여전히 저렴하다**(그림6)**. 역사적인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이다.

코스피 대형주 내에서 반도체 이외 업종으로 온기가 퍼져가고 있다는 점도 강세장에 우호적이다. 코스피200에서 20 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수 누계를 하락 종목수 누계로 나눈 백분율인 ADR 지표가 1월 8일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다**(그림7)**. 주도주인 반도체 업종에서 다른 업종과 종목으로 강세장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강세장 말미에는 ADR 지표가 지수 고점전 먼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8).** 강세장 말미에 주도주로 쏠림을 보여 지수는 상승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먼저 하락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번 강세장에서 코스피는 12월까지는 반도체 쏠림이 커졌지만, 1월들어 주변 업종으로 강세가 확장되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와 개인의 머니 무브 등 우호적인 자금 환경에 코스피 시장 전체가

우상향 하는 환경이다. 강세장이 계속될 수 있는 배경이다.

외국인 순매수와 반도체 실적 호조에 대형 수출주 유리

지난 1월 5일 작성한 '2026년 코스피의 건강한 강세장은 계속된다'에서 전망한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수 확대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추가 실적 전망치의 상향 가능성이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코스피 약세장 동안 외국인은 -38조원 넘게 순매도를 보였다**(그림9)**. 이후 5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의 1차 강세장 동안 +21조원 순매수했다. 하지만 11월들어 글로벌 AI 버블론이 불거지고, 원화 약세가 심화되자 외국인은 11월 한달동안 -14조원 순매도 전환했다.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의 2차 강세장에서 +5.6조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11월 순매도 규모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도체가 역사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 외국인 순매수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인 매수 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가 유리하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의 2026년 실적 전망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난 1월 8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빠르게 상향 수정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는 각각 120조원과 93조원 수준이다. 다만 달러화 기준으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개사의 2026년 영업이익(EBIT) 전망치 컨센서스를 비교하면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 상향 수정에 비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10)**. 또한, AI 투자 확산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과거 2018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를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그림11)**.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코스피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시 코스피의 추가 레벨 상승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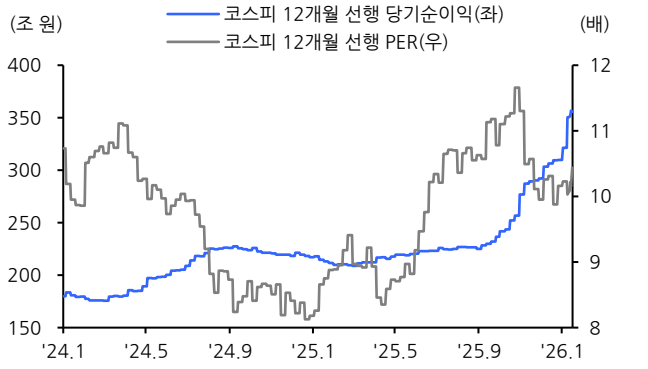
다만 코스피 내에서는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원화 약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환경 호조에 비해 내수 회복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에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코스피에서 수출주 우위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내수주에 부정적이나, 수출주에는 유리하다**(그림12)**.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장기간 상승이 미래 약세 의미하지 않음

일자	코스피 종가(pt)	연속 상승 (거래일)	1개월 후 수익률(%)	3개월 후 수익률(%)
'19.4.16	2,248.63	13	-8.1	-7.0
'19.9.24	2,101.04	13	-0.7	4.2
'06.4.07	1,402.36	12	3.6	-9.2
'09.7.28	1,526.03	11	5.4	5.5
'25.9.16	3,449.62	11	8.7	15.9
'26.1.16	4,840.74	11		
'18.8.29	2,309.03	9	0.7	-6.5
'20.6.10	2,195.69	9	-2.1	9.1
'20.8.13	2,437.53	9	0.9	2.3
'23.1.16	2,399.86	9	3.2	8.3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2> 코스피 강세는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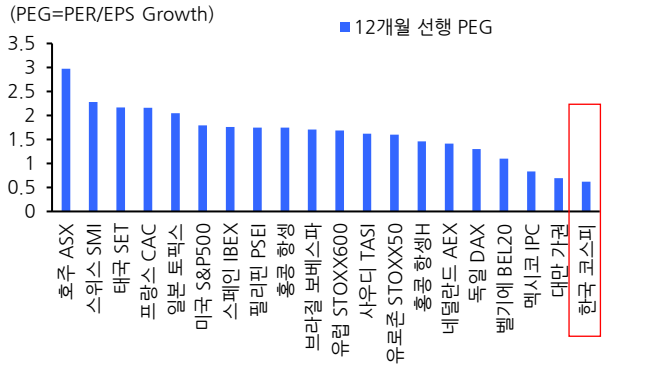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3>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20년 평균 소폭 상회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4> EPS 성장 고려 시 코스피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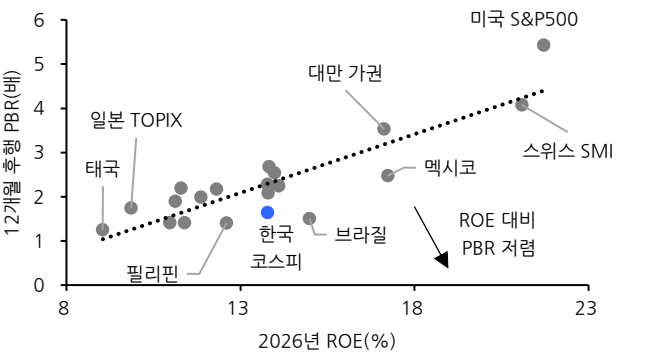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그림 5> 코스피 PBR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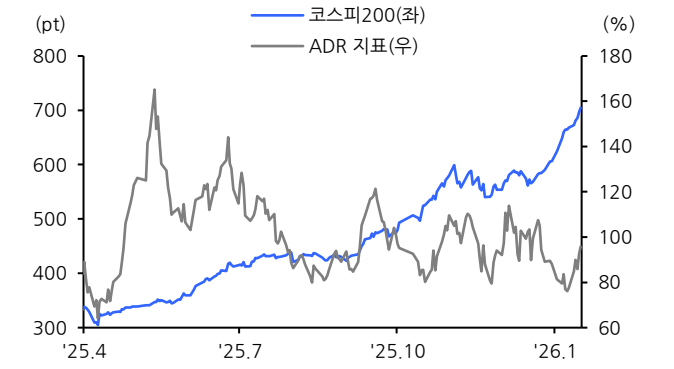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6> 올해 예상 ROE 고려 시 글로벌 증시 대비 PBR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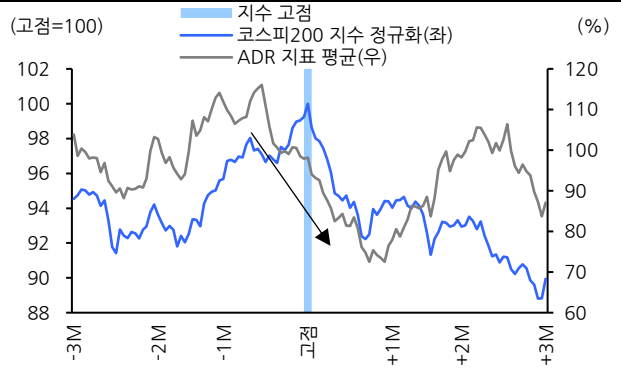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그림 7〉 코스피 대형주에서 퍼지는 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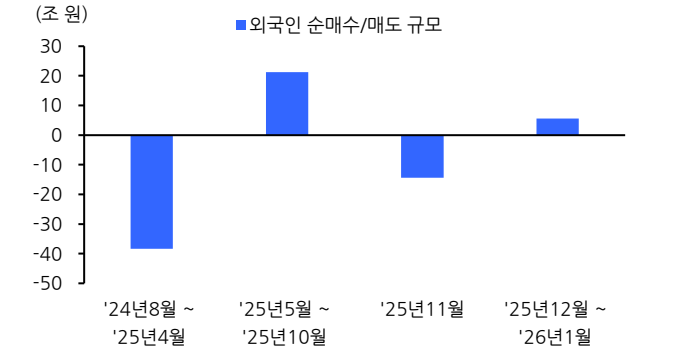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8〉 역사적으로 고점 앞두면 ADR 먼저 하락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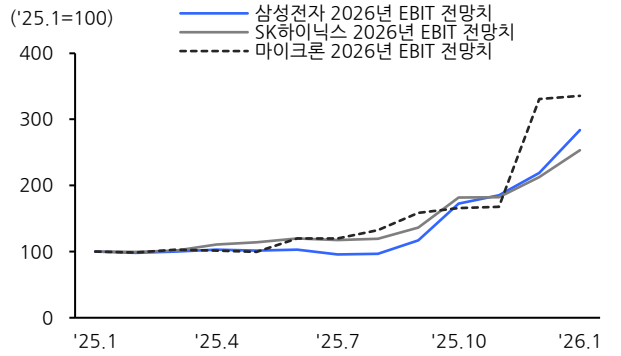
주: 과거 4차례('07년 10월, '11년 5월, '18년 1월, '21년 7월) 강세장 종료 3개월 전후의 코스피200 지수(정규화) 평균과 ADR 지표 평균의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9〉 코스피 강세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크지 않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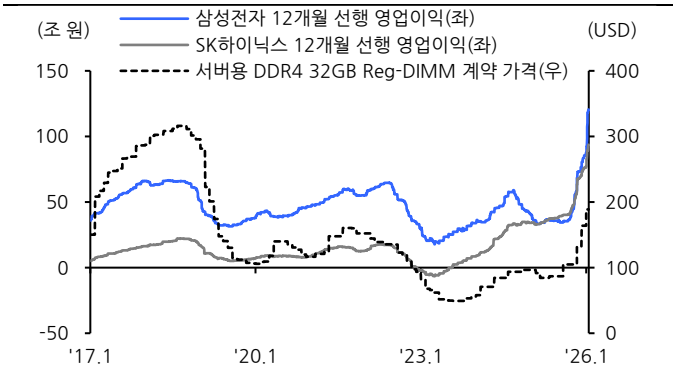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10〉 12월 들어 벌어진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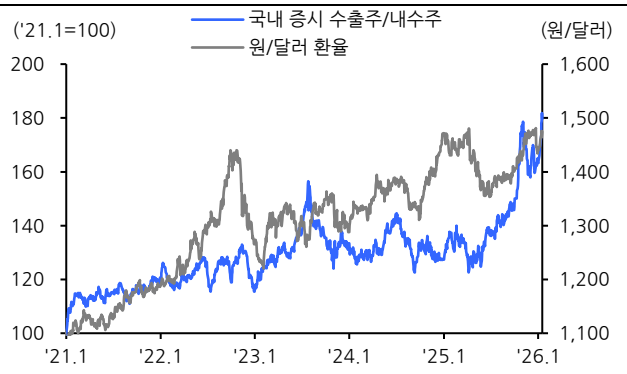
주: 2026년 3개사 EBIT 전망치 컨센서스(달러기준)의 정규화 추이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그림 11〉 메모리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이익 전망에 긍정적



자료: 에프앤가이드,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12〉 원화 약세는 수출주에 유리한 환경



주: 수출주는 FnGuide MKF 수출주 지수, 내수주는 FnGuide 내수주플러스 지수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Weekly Quanticle

4Q 실적시즌 Preview, 신뢰도 하락의 원인

Quant 조창민 chocm@hmsec.com

4분기 실적시즌 Preview

- 당사 퀀트 유니버스 297개 종목의 4분기 이익 컨센서스는 (분기말 기준) 76.4조원을 기록 중
- 4분기 및 2026년 이익전망치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향조정 중.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은 483조원까지 상승
- 2024년 4분기 이익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로, 2025년 4분기 이익 성장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
- 다만, 실적시즌 초반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 이후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업종별 실적 편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실적시즌이 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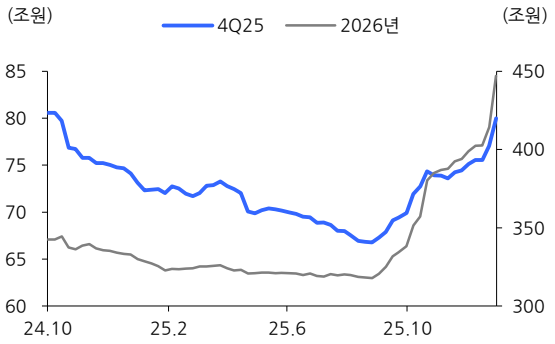
4분기 실적시즌, 신뢰도 하락의 원인

- 4분기는 통상적으로 실적시즌의 전망치 달성률이 타 분기 대비 낮은 분기
- 퇴직금, 성과금 및 충당금과 같은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 집중적으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추정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실제로, 4분기에는 판관비(인건비) 및 기타 영업외비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분기임이 확인되며, 특히 판관비 내에서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됨
- 연간 기준으로 볼 때, 4분기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1~3분기 평균 대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

일회성 비용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업종/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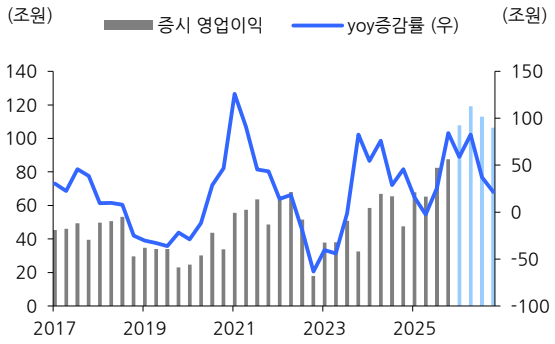
- 즉, 4분기에는 실적뿐 아니라 판관비(인건비·복리후생비) 및 기타 영업외비용의 변동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작업은 최근 가파른 속도로 상향조정되고 있는 이익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보정 지표로도 유효하다는 판단
- 컨센서스 상향 종목 내에서도 비용 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실적 추정 오차가 작을 가능성이 높음
-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 결국 일회성 비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해당 비용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업종, 종목의 4분기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을 가능성이 존재
- 4분기 이익 컨센서스가 증가하고 있고, 25년 이익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중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중이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스크리닝

〈그림 1〉4분기 및 2026년 이익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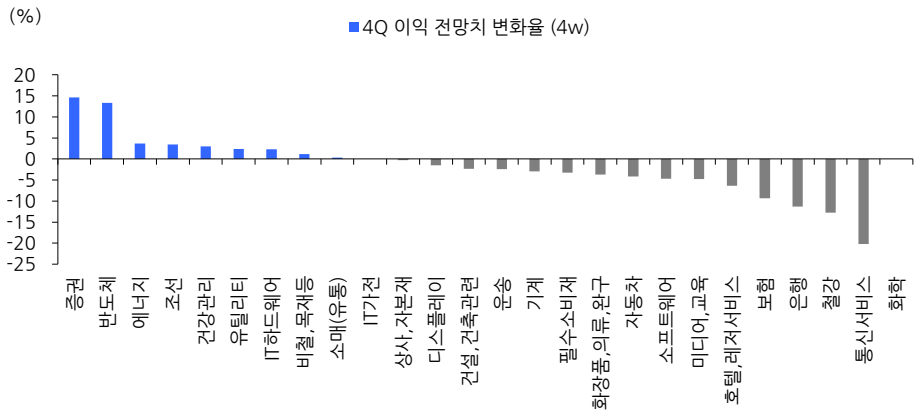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현대차증권

〈그림 2〉 증시 영업이익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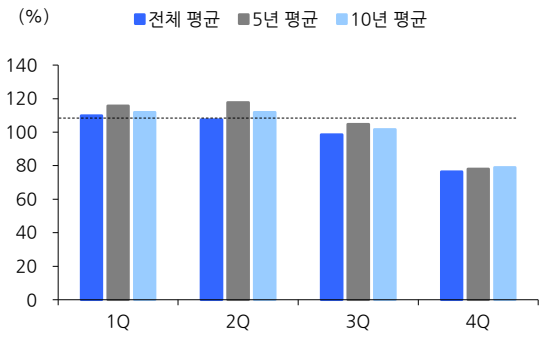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현대차증권

〈그림 3〉 업종별 4분기 이익 전망치 변화율 (4주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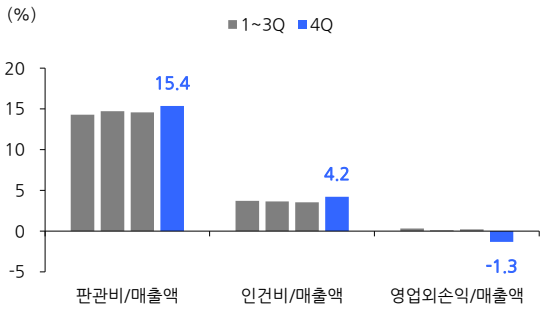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현대차증권 주: 은행, 증권, 보험 업종은 순이익 기준

〈그림 4〉 분기별 평균 전망치 달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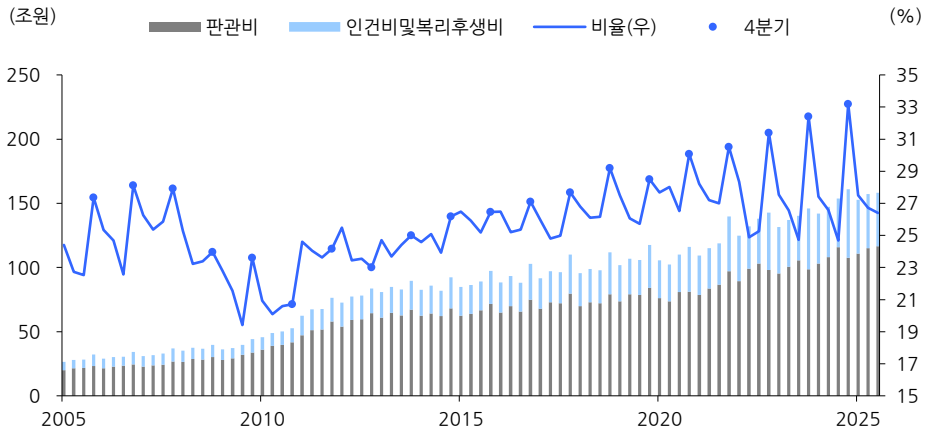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현대차증권

〈그림 5〉 예측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회성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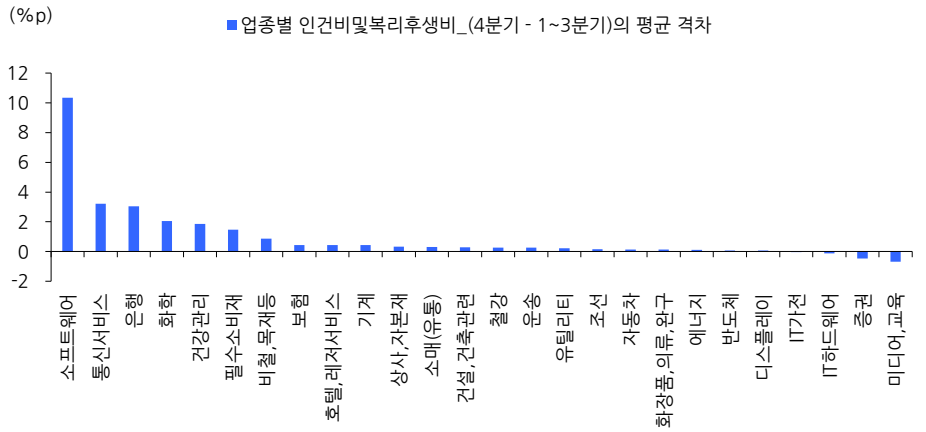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현대차증권

<그림 6> 4분기에 증가하는 판관비 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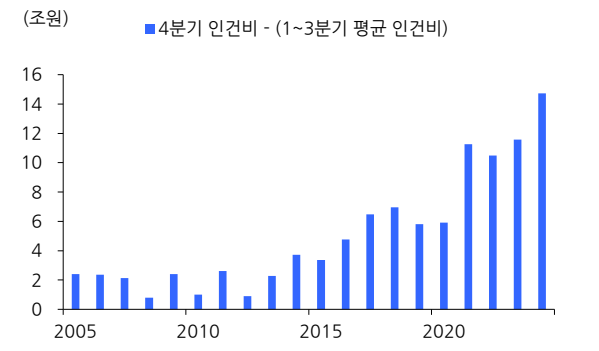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현대차증권

<그림 7> 4분기와 타 분기의 평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격차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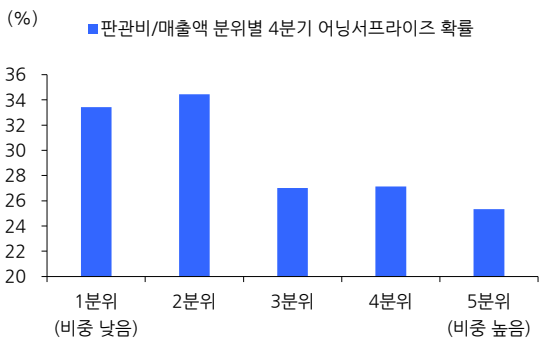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현대차증권

<그림 8> 최근 확대되는 4Q 인건비 격차



자료: FnGuide Quantiwise, 현대차증권

<그림 9> 판관비 비중 분위별 4Q 서프라이즈 확률



자료: FnGuide Quantiwise, 현대차증권

〈표 1〉4분기 비용 리스크(평균 판관비 비중)와 컨센서스 변화율을 고려한 스크리닝

코드	종목	구분	업종	시가총액	전망치변화율	yoy증감률 (25년)	판관비/매출액 (%)	
							4Q24	5년평균
A000660	SK하이닉스	KS	반도체	5,503,698	8.2	87.9	11.5	19.1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S	상사,자본재	669,809	0.2	101.6	8.6	12.1
A035420	NAVER	KS	소프트웨어	385,073	0.8	11.3	81.2	81.2
A015760	한국전력	KS	유틸리티	351,154	3.5	78.3	3.7	4.9
A086790	하나금융지주	KS	은행	268,306	0.4	10.6	4.3	14.7
A010140	삼성중공업	KS	조선	261,800	1.6	73.4	4.5	7.6
A009150	삼성전기	KS	IT하드웨어	216,238	1.8	22.8	13.0	13.4
A086280	현대글로비스	KS	운송	192,750	0.0	19.9	2.6	3.0
A006800	미래에셋증권	KS	증권	176,931	40.0	25.4	7.2	12.9
A071050	한국금융지주	KS	증권	101,811	8.5	102.0	6.4	22.7
A278470	에이피알	KS	화장품,의류,완구	90,021	1.7	182.7	56.9	65.6
A039490	키움증권	KS	증권	88,419	6.1	36.0	6.1	14.9
A005940	NH투자증권	KS	증권	80,712	8.7	41.1	9.8	27.5
A016360	삼성증권	KS	증권	74,655	7.6	12.2	6.8	12.8
A011070	LG이노텍	KS	IT하드웨어	67,688	3.7	1.7	4.2	5.1
A271560	오리온	KS	필수소비재	43,213	0.5	1.6	19.4	23.0
A145020	휴젤	KQ	건강관리	29,776	0.8	17.2	29.8	37.6
A028670	팬오션	KS	운송	22,211	1.4	4.6	1.8	3.1
A069960	현대백화점	KS	소매(유통)	21,746	3.8	41.3	51.4	54.2
A034230	파라다이스	KS	호텔,레저서비스	15,506	6.6	25.3	9.1	10.7
A183300	코미코	KQ	반도체	10,356	3.8	1.9	28.3	28.3
A192400	쿠쿠홀딩스	KS	화장품,의류,완구	9,833	0.5	12.8	26.4	26.7
A082920	비츠로셀	KQ	IT가전	8,877	5.3	32.5	8.9	11.4
A033500	동성화인텍	KQ	화학	8,022	2.6	39.4	7.2	9.4
A039130	하나투어	KS	호텔,레저서비스	7,125	5.2	11.0	90.4	243.4
A322000	HD현대에너지솔루션	KS	에너지	6,373	4.5	1,059.1	9.2	9.9
A214420	토니모리	KS	화장품,의류,완구	2,006	6.1	43.3	45.2	53.9

자료: FnGuide Quantiwise,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업종 투자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25.01.01~2025.12.31)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47건	90.7%
보유	15건	9.3%
매도	0건	0%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